

박성현, 텍사스 클래식 시즌 첫 승

〈미국여자프로골프〉

이글 1개 등 묶어 5언더파 66타
린디 던컨 1타 차로 따돌려 우승

박성현(25·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텍사스 클래식' (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시즌 첫 승과 함께 통산 3승을 거뒀다.

박성현은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 콜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 71·647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2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131타를 기록한 박성현은 린디 던컨(미국·10언더파 132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8번째 대회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캐네디안 피시픽 여자오픈' 이후 약 9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LPGA 투어 데뷔와 동시에 메이저대회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2승을 한 박성현은 신인왕은 물론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휩쓸며 투어를 강타했다.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이전 대회까지 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앞서 7개 대회에서 '톱10' 한 차례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던 컷 탈락을 두 번이나 했다.

부진이 길어지는 듯 했으나 텍사스 클래식이 반등의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는 첫 날부터 강풍과 비 등으로 인한 악천후로 당초 4라운드 72홀에서 2라운드 36홀로 축소됐다.

반쪽 대회로 치러졌지만 우승 기록과 함께 상금은 유효하다. 박성현은 우승 상금 19만5000달러(2억1000만원)를 손에 쥐게 됐다.

박성현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는 올 시즌 고진영(ISPS 한타 위민스 호주오픈), 박인비(뱅크 오브 파운더스컵), 지은희(KIA 클래식)에 이어 4승을 수확했다.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한 박성현은 1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하며 불안하게 스타트를 끊었지만 4번 홀(파5)에서 어프로치 샷 이글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6번 홀(파4) 두 번째 샷을 핀 앞쪽에 붙여 버디를 잡았다. 8, 9번 홀에서도 연속 버디를 하며 질주했다.

10번 홀(파4)에서 두 번째 보기를 했지만 11번 홀(파5) 버디로 만회했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는 그린을 벗어난 상황에서 집인 버디에 성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2위에 3타 차로 먼저 경기를 마친 박성현은 추격하던 던컨이 17, 18번 홀에서 파에 그치면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또 다른 추격자 리우 유(중국)도 17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 연장 가능성을 이어갔지만 18번 홀 파에 그치며 3위를 했다.

유력한 신인왕 후보 고진영(23·하이트진로)은 2타를 줄여 6언더파로 이미향(23·별빅)과 함께 공동 8위로 톱10에 성공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전한 전인지(24·KB금융그룹)는 5언더파 공동 12위를, 지난주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모처럼 우승을 차지했던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성현은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 콜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475야드)에서 열린 텍사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소연 풀타임... 첼시 레이디스, FA컵 우승

한국 여자축구의 '헤이스' 지소연이 소속한 첼시 레이디스가 FA컵에서 우승했다.

첼시 레이디스는 지난 6일(한국시간) 영국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여자 FA 결승전에서 아스널 무언에 3-1로 승리했다고 BBC스포츠가 전했다.

이번 승리로 첼시는 2015년 이후 통산 2번째 FA컵을 차지했다. 첼시는 후반에만 3골을 몰아넣는 저력을 과시했다. 첼시는 스위스 출신 라모나 바흐만이 2골, 프랜 커비가 1골을 기록하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지소연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며 풀타임을 소화했다. 특히 지소연은 전반 4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슈트를 날렸지만 공은 어렵게 골대를 빗나갔다.

첼시는 FA컵 우승으로 올 시즌 '더블'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리그 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첼시는 9승5무(승점 32)로 1위 맨시티(10승2무2패·승점 32)에 골득실에서 2골 뒤지고 있다.

한편 첼시와 아스널 간 이날 경기에는 4만5423명의 관중이 입장해 여자 축구에 대한 영국인들의 열기를 보여줬다.

/뉴시스

전북현대, K리그1 전남드래곤즈와 0-0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1(부리그)의 전북 현대가 연승 행진을 9경기에서 마감했다.

전북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전남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전남 드래곤즈와의 KEB하나은행 2018 K리그1 12라운드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2라운드 이후 9연승을 달렸던 전북은 정규리그 최다 10연승에 도전했지만 어렵게 좌절했다.

최다 연승은 전북이 2014년과 올해 세운 9연승이다. 앞서 성남 일화(현 성남FC), 울산 현대도 승강제(2013년) 도입 전인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9연승을 거둔 적이 있지만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전북이 최다 연승이다.

전반 36분 정혁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린 것이 경기를 어렵게 했다.

또 오는 8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1차전을 앞두고 있어 주축들을 대거 쉬게 했다.

김신욱, 이재성, 아드리야노, 로페즈, 이승기 등 주요 선수들이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그레도 10경기 연속 무패(9승1무)를 이어가며 10승1무1패(승점 31)로 선두 독주 체제를 이었다.

/뉴시스

권창훈·황희찬, WC명단 발표 앞두고 나란히 '골맛'

2018 러시아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가운데 신태용호 승선이 유력한 권창훈(디종), 황희찬(잘츠부르크)이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권창훈은 7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 제라르에서 열린 강강과의 2017~2018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6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소속팀 디종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10번째 골을 신고한 권창훈은 지난해 1월 프랑스 무대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권창훈은 0-0으로 팽팽한 전반 35분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1-1로 팽팽한 후반 20분에는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도움을 기록했다. 경합 도중에 권창훈의 몸에 맞고 흐른 것이 행운의 도움으로 연결됐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도 1골 1도움을 올렸다.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벌어진 그라츠와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33라운드에서 황희찬의 1골 1도움을 앞세워 4-1 완승을 거뒀다.

황희찬은 0-1로 뒤진 전반 추가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렸고 2-1로 앞선 후반 20분 도움을 올려 분위기를 주도했다. 리그 5호 골이자 시즌 13호골이다.

둘은 오는 14일 발표를 앞둔 러시아월드컵 대표팀 명단에 포함될 게 유력한 지원자들이다. 신태용호의 짧은 피로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태용 감독은 14일에 엔트리를 발표하고 21일 소집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